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통상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하원정 소장
		일시	2022.09.21.

CEPA Insight

- 인니 PPKM¹⁾ 규정 10월 3일까지 연장, 전국 1단계 조치
- 잠재적 내수시장으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 건설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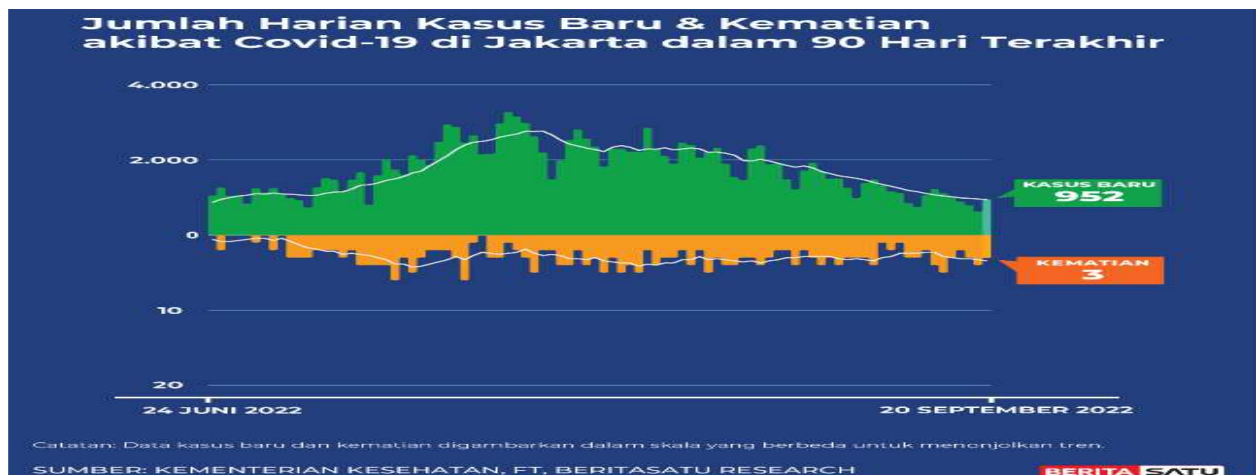
< 2022년 8월 기준 對 인도네시아 교역현황 >

구분	수출액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수입액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무역수지
전국	467,461,378천불	13.5%	492,569,577천불	25.9%	△25,108,199천불
충남	75,045,961천불	15.5%	35,214,402천불	50.1%	39,831,559천불

※ 출처: 한국무역통계(<http://stat.kita.net/>)

■ PPKM 규정 10월 3일까지 연장

- 9월 14일부터 슈퍼마켓 등 입장 시 Peduli Lindungi 앱을 사용 필수
- 인니 정부는 PPKM 규정을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또 다시 연장함. Syafrizal 인니 내무부 지방행정국장은 지난 코로나19 확진 상황이 하향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PPKM을 재 연장했다고 말함
- 쇼핑 센터나 쇼핑몰 및 공공 장소는 22일까지 100%허용을 하되 2차 백신접종이나 부스터를 접종해야하며 입장 시 반드시 Peduli Lingungi 앱을 사용해야 함
(출처: 한인포스트, 2022.09.12.)



< 2022년 9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 >

(출처: Berita Satu, 2022.09.20.)

1)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활동제한

■ 잠재적 내수시장으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 건설산업

• 혼잡한 자카르타 전신주 유선 없어질 예정 (출처: 한인포스트, 2022.09.12.)

-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9월 5일 남부 자카르타 맘팡 브라파탄 시장에서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전선 절단 과정을 점검하며 덕트 시스템 또는 통합유틸리티 네트워크(SJUT)로 변경하여 전신주에 매달린 케이블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힘
- SJUT는 자카르타 주 정부의 공기업인 PT Jakarta Propertindo의 계열사인 PT. Jakarta Infrastruktur Propertindo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말까지 22개 도로에 있는 115km의 SJUT설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함
- 자카르타 주 정부는 더 현대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유선 유틸리티 네트워크 체계를 통합 운영하겠다고 강조함



< 115km 유선 지하 매설 통합 유틸리티 네트워크 시스템(SJUT) 작업 >

(출처: Detik.com, 2022.09.19.)

• 인니의 인프라 확대 정책 등으로 건설 수요 확대 (출처: 한인포스트, 2022.09.12.)

- 인도네시아 건설 산업이 잠재적인 내수 시장의 성장과 정부의 경제발전건설 프로젝트,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주택, 인프라 수요증가 등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건설사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 인도네시아는 2021년 전 세계 글로벌 건설산업 발전 기여도 부문에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10대 건설시장 국가에서 5위 규모, 아세안 10개국에서 1위 규모의 건설 시장을 보유한 중요한 국가이며, 특별히 200개 이상 정부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시행 등으로 아세안 최대의 건설 강국임
- 수도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수도 이전 대상지가 속해 있는 칼리만탄, 술라웨시, 수마트라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약 350개의 해외 건설회사가 진출해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20만 개의 건설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사업 중임

-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뒷받침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의 발전은 낙관적이며 주요 건설 설비, 기계, 공구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는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건설 및 설비기계 기업에게도 진출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전망됨

< 인도네시아 지역별 건설 프로젝트 현황 >

번호	지역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규모
1	자바	84개	1,997.3조 루피아 (약 175조 원)
2	수마트라	44개	778.3조 루피아 (약 70조 원)
3	술라웨시	22개	276.9조 루피아 (약 24조 원)
4	칼리만탄	16개	506조 루피아 (약 45조 원)
5	발리 및 누사 툽가라	12개	71.8조 루피아 (약 6.5조 원)
6	말루쿠, 파푸아	10개	566.5조 루피아 (약 51조 원)
7	전국, 국가	22개	1,543.3조 루피아 (약 140조 원)
8	프로젝트(신수도 이전 등)	212개	5,739.7조 루피아 (약 515조 원)

< 주요 건설산업 관련 설비, 장비, 자재 수입 의존도 >

번호	구분	국산제품 의존도	수입제품 의존도
1	건설 설비, 및 장비	8.3%	91.7%
2	건설용 전자, 회로, IT 장비	9.7%	90.3%
3	철, 철강, 철근, 합관 재료	17.6%	82.4%
4	시멘트, 기타 건설 소재	26.2%	73.8%
5	세라믹 제품, 자재	30.9%	69.1%
6	조립식 건축자재	39%	61%
7	아스팔트	43.8%	56.2%
8	전등, 페인트	49.3%	50.7%
9	기타 건설용 무자재	87.8%	12.2%
10	목재	97.2%	2.8%

< 인니 지역별 건설 프로젝트 현황 >

출처: 인니 공공사업 국민 주택부

< 인니 건설 설비, 장비, 자재 수입 의존도 >

출처: 인니 통계청(SPEKINDO)

■ 건설 관련 도내 기업, 인니 시장 진출 시 주요 사항

• 인니 건설시장 진출 시 고려 사항

- 외국건설회사 대표사무소(RO) 또는 외국직접투자(FDI)를 통한 현지 법인 진출 가능
 - ※ 인니내 건설허가 획득 시 엄격한 심사 기준이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진출 형태를 결정 필요
- 주요 건설 자재에 대한 수입 전 사전수입승인제도 시행
 - ※ 사전수입승인제도는 외국 기업에게는 큰 무역장벽임에 따라 사업검토 시 사전 확인 필수

• 시사점

-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 연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상업, 주거용, 인프라 건설프로젝트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성공적인 인니 건설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경험 많고 신뢰 있는 파트너 선정이 필수라고 판단됨. 끝.